

# 지역 9월 소비자물가 2%대 상승세 여전

## 호남통계청 발표...광주·전남 전년동월비 2.8%·2.5% ↑ 체감물가 반영 생활물가지수는 3.7% ↑ ...장바구니 부담 '쑥'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2%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석 달 연속 기준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의 오름폭은 4% 가까운 것으로 집계돼 장바구니의 부담이 더욱 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 2.5%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광주·전남이 동일하게 0.5%씩 올랐다.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8.49(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

비 3.0% 상승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후 8월 2.9%, 9월 2.8%로 오름폭은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전월 대비 0.9%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는 지출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을 골라서 작성해 '체감물가'로 불린다.

광주 생활물가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품목성질별지수는 농축수산물에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공업제품이 3.5%로 뒤를 이었으며 서비스는 2.4%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중 닭고기 상승률이 52.5%로 지난해 9월보다 절반 넘게 올랐으며 돼지고기도 14.3% 가격이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경유(25.5%), 휘발유(22.4%

%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서비스품목은 구내식당식사비(9.3%), 사립대학교 납입금(6.8%) 등이 각각 올랐다.

신석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4.4% 경중 뒤편었다.

전남지역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5(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5%, 전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

전남 소비자물가도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 이후 8월 2.9%, 9월 2.5%로 2개월 연속 오름세는 둔화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1.1%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품목성질별지수는 공업제품이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 2.1%, 농축수산물이 1.2%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자동차용LPG(27.7%), 경유(23.7%), 휘발유(20.8%)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서비스품목은 사립대학교 납입금(6.8%), 시내버스료(2.9%), 외래진료비(1.8%) 등이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1.2%) 중 가격 상승은 달걀(40.0%), 돼지고기(16.4%), 국산쇠고기(7.9%) 순이었다.

신석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하락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3.74%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며 하방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악화됐던 소비심리 반등, 개인서비스 가격 오

### 광주 소비자물가 동향

[2021년 9월 기준 · 전년동월대비]



농축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3.8%	3.5%	2.4%
돼지고기(14.3%)	휘발유(22.4%)	사립대납입금(6.8%)
달걀(40.0%)	경유(25.5%)	구내식당식사비(9.3%)
배추(-47.9%)	휴대전화(-0.3%)	휴대전화료(-0.6%)
무(-46%)	아이스크림(-11.2%)	병원검사료(-2.2%)

름세, 국제유가 상승, 우유 원료 상승, 전기료 인상, 통신비 지원 효과 소멸 등 상

### 전남 소비자물가 동향

[2021년 9월 기준 · 전년동월대비]



농축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1.2%	3.8%	2.1%
돼지고기(16.4%)	휘발유(20.8%)	사립대납입금(6.8%)
달걀(40%)	경유(23.7%)	보험서비스료(9.6%)
배추(-40.3%)	휴대전화(-0.3%)	휴대전화료(-0.6%)
사과(-14.6%)	김치(-9.9%)	병원검사료(-2.3%)

방요인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휘발유 가격다시 오름세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3.06원 오른 1당 1천655.98원을 기록했다. /김애리기자

# “안전·속도 강화” 광은 개인뱅킹 앱 개편

### 이용자 중심 디자인 적용...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

광주는행은 6일 '개인뱅킹 앱(App)'을 전면 개편, 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워진 광주는행 개인뱅킹은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이용자 중심의 심플하고 트렌디한 디자인 적용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새롭게 적용되는 'KJ모바일인증서'는 인증번호 6자리와 패턴 또는 지문인증(Face ID)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고 로그인과 거래 인증 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보안이 한층 강화되고 이체거래의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KJ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은 하루 최대 1천만원까지 계좌비밀번호나 보안카드, OTP 입력 없이 인증번호만

호 6자리만으로 빠르게 이체할 수 있다.

또 앱 실행 처리속도가 기존보다 2-3배 빠르게 획기적으로 개선돼 이용 편의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와 함께 광주는행 개인뱅킹 앱 설치 후 고객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맞춤형으로 제공, 손쉽게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를 홈 화면 메인에 설정해 오픈뱅킹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새 개인뱅킹 앱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해 보다 깔끔하고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하고 기본·심플·급급 세 가지 타입의 홈 화면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품질인증기관 웹와치로

부터 '앱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까지 크게 향상시켰다.

송종욱 광주는행장은 "가속화되는 금융의 디지털시대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주는행 개인뱅킹의 전면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행은 지난 7월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허가를 획득해 향후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자산조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기 위한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 “빅스비, 전기요금 알려줘”...한전, AI 음성인식 서비스 개시

한국전력은 6일 전기요금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 'AI(인공지능) 음성인식'을 통한 고객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빅스비(Bixby)가 탑재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빅스비를 통해 "한전에서 전기요금 알려줘" 등의 정보를 물어보면 음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객 정보와 전기요금 조회, 신용카드 납부, 이사 요금 정산·납부, 명의변경 신청, 전기고장 신고, 고객센터 연결, 가까운 사업소 관련 정보도 음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객 번호 및 전기요금 등 개인정보 사항이나 민원업무는 한전 사이버지점의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성으로 전력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

소 방문이나 고객센터 전화 연결 등의 고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 업무의 모바일 전환 및 디지털 창구 구현을 위해 음성 AI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복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보해양조, 광주 문화예술인 지원

### 한국소극장협회 광주시지회와 업무 협약

보해양조가 광주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한다.

6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날 광주 공동에 위치한 예린소극장에서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 광주시지회(이하 소극장협회 광주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광주 소극장축제의 성공을 기원한다. <사진>

이를 위해 보해양조는 광주소극장축제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공연 출연진과 관람객들을 위한 물품 지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로 24회째 열리는 광주 소극장축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광주 상무지구 기본좋은극장을 비롯해서극단예린소극장, 광주아트홀, 예술극장통, 씨어터 연바람, 공연일번지, 문예정터, 민들레소극장, 지니아트홀 등 광주 소재 9개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보해양조는 지난 2017년부터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본좋은 극장에 물품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역기업으로서 광주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 소극장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연극 발전을 위해 지역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기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진짜 맛과 멋이 있는

# 진도조금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 12, 17, 22, 27일

주최 : 문의 : 062)650-2099